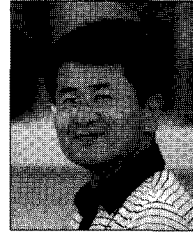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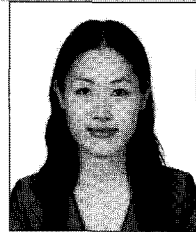


전통마을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과 구축 방향

Why and How to Make the Database of Traditional Maeul



한 필 원*



이 주 옥**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강사

필자들이 속한 한남대학교 ATA(아시아건축연구실)는 2009년 말 착수된 ‘한옥건축 통합정보시스템 및 3차원 한옥부재 라이브러리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 전통마을의 데이터베이스(이하 전통마을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전통마을 DB가 필요한 이유와 그것을 구축하는 목적, 그리고 그에 따른 DB의 구축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주택-마을 체계

마을의 어원은 집회의 뜻인 ‘모을’ 혹은 ‘모들’이라고 한다. 마을은 상부상조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주자들의 공동사회이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마을은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인식되고 전달되는 정주(定住) 단위로서 특별한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필자들이 마을을 영어로 표현할 때 village나 settlement로 번역하지 않고 maeul이라는 우리말로 표기하는 것도 마을이 갖는 복합적인 의미가 번역어로 전달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마을의 공간구성과 생활방식은 주택의 그것들과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 따라서 마을과 주택은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서로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하

나의 체계(system)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라포포트는 이것을 ‘주택-마을(house-settlement) 체계’라는 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이 개념을 전개해보려 한다.

전통마을에서 주택-마을 체계는 공간구조적 체계이기도 하고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의 체계이기도 하다. 여기서 공간구조적 체계란 주택과 마을공간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결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러 전통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볼 때 그런 원칙은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전통마을의 공간이 매우 다양하고 각각 나름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공간구조적 원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이란 공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활동, 또는 공간이나 장소를 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쉬니클로스과 프랭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작물을 재배하고, 산책하고, 신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것에는 행위자, 공간에서 활동과 상호작용의 특수한 패턴, 사용된 물건, 시간 등등이 포함된다.”³⁾ 따라서 그것을 ‘공간 이용방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지적 실천(intellectual practice) 등의 용어와 나란히 쓰일 때가 많으므로 필자들은 ‘공간적 실천’이라

고 옮긴다.

마을공간의 이용방식, 곧 공간적 실천은 주택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 마을에서 사회적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가 가로나 마당 같은 마을공간인가 아니면 단위주택의 내부인가에 따라서 단위주택을 구성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예로, 마을공간에서 사회적 접촉이 활발히 일어난다면 모든 집들에 손님을 접대하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마을공간에서 사회적 접촉이 원활히 일어날 수 없을 경우, 단위주택에 사랑방과 같이 사회적 접촉을 수용하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간적 체계는 공간적 실천과 연계될 때 ‘의미’를 갖는다. 필자들은 많은 전통마을들을 조사·연구하면서 그것들 각각에는 나름의 의미있는 주택-마을 체계가 담겨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주택-마을 체계는 마을과 마을의 주택에 개성을 부여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전통마을과 현대의 획일적인 주거단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논리적이고 개성있는 주택-마을 체계의 존재 여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2. 현대 단독주택단지 계획의 문제점

그것이 집합주택단지이든 단독주택단지이든 현대에 조성된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의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구성과 분위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박리다매의 천박한 경제 논리에 휩쓸려 천편일률적으로 조성된 주거단지들에서는 친구나 이웃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장소조차 찾기 어렵다. 그것들은 우리 사회가 면면히 이어온 모듬살이의 장소인 마을의 전통과 단절된 채 그저 ‘모여 자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다.

나름의 주택-마을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1960년대 후반~1980년대에 민간주택업자가 개발한 도시 단독주택지에서 유수한 건축가들이 설계한 작품 주택들로 구성된 일산 단독주택단지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조성된 단독주택지가 가진 공통적인 문제들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런 단독주택지에서 생활공간은 단위주택 내부에 한정되고 마을공간은 통로 또는 남겨진 공간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점은 전형적인 전통마을인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원터마을과 일산 단독주택단지의 배치도(그림 1, 2)를 비교해보면 잘 드러난다. 전자는 16세기초에 조성되기 시작한 씨족마을이고, 후자는 20세기말에 조성되기 시작한 고급 단독주택 마을이다.

원터마을에서 주택과 마을공간은 일정한 연계적 과정

(sequence)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주택입구 ↔ 셋길 ↔ 안길 ↔ 공동시설(특히 정자) ↔ 마을입구’의 순서로 구성된다. 주택에서 마을입구에 이르는 과정에는 마을의 중심적 사회시설인 정자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거주자들은 마을 안팎을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접촉한다(사진 1).

이에 반해 일산 단독주택단지에서는 주택들이 마을공간과 만나는 방식에 일정한 원칙이 없다. 그림 2의 오른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독주택단지의 가로체계는 주변 아파트단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을에서 주민들의 사회적 접촉이 성별·연령별로 활발히 일어나는 원터마을과 달리, 일산 단독주택단지에서는 사회적 활동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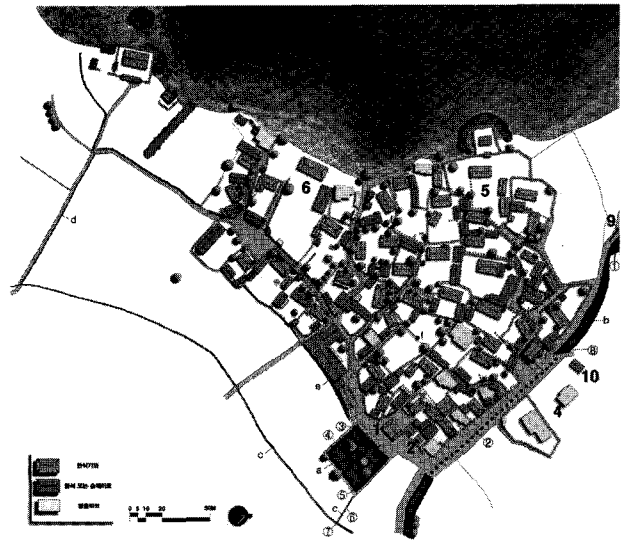


그림 1 원터마을 배치도



그림 2 일산 단독주택단지과 그 주변의 필지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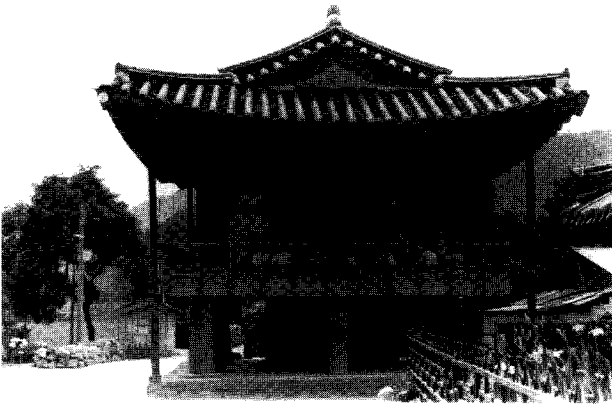


사진 1 원터마을의 정자인 방초정. 주민들은 이곳에서 수시로 만남을 갖는다(1988년 사진)



사진 2 일산 단독주택단지의 내부도로. 긴 직선 도로에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1999년 사진)

주택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한 단독주택지들은 주거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독주택 자체의 선호도도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힘없이 밀려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 투자 가치를 갖지 못해서이다. 그러나 단독주택단지가 아파트단지와 별 차이 없는 단조롭고 빈약한 공간이 아니라 전통마을과 같이 공동체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삶터로서 의미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적어도 앞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한 경제적 안정을 이룬 우리 사회는 이제 삶의 질을 중시하기 시작했으며, 거주공간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점차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들이 착수한 전통마을 DB 구축 작업은 한옥을 새로운 시대의 주거유형으로 정착시키려는 큰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한옥이 선호되는 주거유형으로 정착하려면 한옥 자체가 현대의 주거공간으로서 기능과 성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마을과 공간구조적으로 또

공간 실천에 있어 의미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겠다. 경제성만을 염두에 둔 격자형의 가로체계 속에 한옥을 삽입하는 것으로는 한옥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한옥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 우려가 있다. 요컨대 한옥을 포함해 단독주택이 소위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주거유형으로 정착하려면 그것이 마을과의 관계 속에서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전통마을 DB 구축의 필요성

한옥을 비롯해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대해 경쟁력을 갖는데는 단지, 곧 마을의 공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현대의 주거지, 곧 마을을 계획하는 기준 혹은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당장 이 문제에서 벽에 부딪히게 된다. 건축의 계획과 설계에 매우 유용한 자료는 선례에 대한 자료인데 그것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것은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개별적인 자료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서양에서 자기들의 선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책들을 보며 주거단지의 설계를 공부하고 실천해 왔다. 이 글의 맨 앞에서 마을은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참으로 모순되고 위험하기까지 한 일이다. 최근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전통주거공간을 연구하여 새로운 주거단지의 설계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그간의 전통마을에 대한 연구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종합·정리되어 있지 않아 이런 좋은 시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필자(한필원)는 ‘동탄2 신도시’를 한국형 신도시로 계획하는 뜻깊은 프로젝트에 자문을 한 적이 있다. 현상설계를 통해 이 일을 맡은 사무소는 필자가 추천한 마을들을 현지답사하며 현대 주거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들을 찾아내려고 진지한 노력을 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지금 구축하려는 전통마을 DB가 있었다면 매우 유용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옥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 우리가 전통마을 DB를 구축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4. 전통마을 DB의 구축 방향

전통마을 DB는 앞에서 제시한 목적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구축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마을 DB를 사용할 사

람들은 사업자(기획자), 계획·설계자, 거주자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통마을 DB의 구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상되는 사용자 집단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사용자 집단들의 요구사항이 파악되면 그에 따라 질의어(query)를 선정하고 DB를 설계해나갈 계획이다.


전통마을 DB의 사용자 집단과 유사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헌, 또는 건축가가 저술한 전통마을 관련 문헌도 두루 살펴서 전통마을 DB를 구축하는데 참고할 생각이다. 1978년에 영국의 대런던의회(Greater London Council)가 펴낸 『an introduction to HOUSING LAYOUT(주거배치 입문)』은 전자에 해당한다. 바스(Bath) 등 영국의 오래된 주거지들을 분석해 주거단지계획의 지침을 제시한 이 책은 우리 대학의 교재로도 쓰이지만, 우리가 이 책에서 참조하려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체제다. 그 책의 본문은 크게 ‘부지분석, 공간구성, 접근로, 주차, 보행동선’으로 되어 있다. 물론 여기서 ‘주차’는 전통마을 DB와 무관하지만 ‘접근로’의 항목들인 ‘위계’, ‘기본 도로 체계’ 등은 전통마을 DB의 분류항목으로 삼을만하다.

하라 히로시(原廣司)가 쓴 『集落の教え 100 (마을의 교훈 100)』은 후자에 해당한다. 1998년 출간된 이 책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마을들을 현지조사해서 얻은 교훈들이 ‘질서’, ‘광장’ 등 100개의 키워드로 정리되어 있다. 근래에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여 개성있는 주거단지 설계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山本理顯)이 1970년대에 하

라 히로시의 마을조사에 여러 차례 참여한 사실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있다.

마을의 계획과 설계의 핵심은 앞서 설명한 ‘주택-마을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전통마을 DB는 마을들의 입지나 형태를 유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택(주로 한옥)의 유형 그리고 그것이 마을공간과 결합되는 방식 등 주택-마을 체계의 구체적인 양상들이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질 것이다. 현대의 마을 계획에 적용·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통마을 DB가 충실하게 구축되고 활발히 활용된다면 한옥을 비롯한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지는 수준높은 현대의 마을을 조성하는 일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이종필 외, 『영남지방 고유취락의 공간구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3, 111쪽
2. Rapoport, Amos,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1969, 69~73쪽; Rapoport, Amos, 『Human Aspects of Urban Form』, Pergamon, 1977, 305~315쪽
3. Schneekloth, Lynda & Franck, Karen 편, 『Ordering Space: Types in Architecture and Design』, VNR, 1994 

[담당 : 정성진, 편집위원]